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한다.
-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대화 중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와 성규는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성규가 화가 난 이유를 대화 방식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 테니까.

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탁탁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

3. 태호와 성규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민우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바람직한 대화 전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 봅시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세 명이 한 모둠이 되어, 다음 절차에 따라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봅시다.

(1) 태호와 성규, 민우가 다투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써서 정리해 봅시다.

(2)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이 각각 태호, 성규, 민우의 역할을 맡아 대화해 봅시다.

(3)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모둠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영상을 다 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전략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1.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대화해 봅시다. (단, 대화를 녹음할 것.)

2. 녹음한 대화를 들어 보면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였는지 평가해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발표해 봅시다.

2. 공감적 경청

: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2.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말해 봅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내 느낌을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장면 1’을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가 성규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섭섭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성규가 태호와의 대화에서 보인 행동 중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친구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적 경청의 방법 생각해 보기]

1. 이 상황에서 성규가 태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 봅시다.



태호가 말을 하지만 성규는 게임만 할 뿐 태호를 바라보지 않는 장면

2. <보기>와 같이 친구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적어 봅시다.

<보기>

관심의 표현: 그래서? 그런데?

- 1) 공감의 표현: _____
- 2) 기쁨의 표현: _____
- 3) 동정의 표현: _____
- 4) 놀라움의 표현: _____

● '장면 2'를 보고 답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유진이가 희주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다음은 '장면2'의 대화 장면을 옮긴 것입니다. 희주가 한 말 중 유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밑에 줄을 그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

희주 : 왜?

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단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나오고.

희주 : 그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영어 단어도 꼬박꼬박 외우고, 수학도 응용문제 많이

풀면 뭐가 어렵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엄살은...

유진 : (한숨을 쉬며 희주를 짜려보며, 표정 일그러진다.)

희주 :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니까 이런 말 해 주지. 내가 너였으면 수다 떨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겠다.

유진 : (화가 나서) 됐다. 내가 너랑 뭘 얘기를 하냐? 잘난 척은... (훅 나가버린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속상해 하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감하며 말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1. 여러분이 만약 유진이라면 이 상황에서 희주가 어떻게 반응하며 말해 주길 바랄지 말해 봅시다.
2.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규칙>

1. 상대방의 말에 비판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기.
2.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가 한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

친구: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지?”

1) 친구: “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큰일이야.”

나:

2) 친구: “밤마다 자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나:

3) 친구: “동아리 활동 준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정신이 없어.”

나: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주제로 옆 사람과 5분 내외로 대화를 해 봅시다. 이때 이 장면을 녹화해 봅시다.

2.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평가해 봅시다.

방법	평가
1.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으며 대화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관심을 표현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말을 해 주었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3. 비언어적 표현

: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3. 올바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어떤 말이나 욕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혹은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은 없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여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희주와 성규의 이야기>

1. 희주가 성규를 쳐다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성규는 무엇 때문에 희주에게 화가 났을까요?

3. 다음 대화 상황을 다시 보면서, 희주와 성규의 눈빛과 말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희주와 성규가 서로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민하와 태호의 이야기>

4. 민하가 태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떠올리며, 태호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너 안 봤거든.



뭔 헛소리야?



※ 원인 해설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

5. 민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나요?

6. 태호는 무엇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나요?

7. 희주, 성규, 민하, 태호가 서로 언짢아한 까닭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여 봅시다.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1. 아래 그림에서 대화 분위기가 어떠한지 느껴는지 말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2. 다음과 같은 표정과 몸동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p>(1) 표정</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이 표정은 상대방에게</p> <p>_____</p> <p>_____ 라는</p> <p>의미를 전달 수 있을 것이다.</p>
<p>(2) 자세</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이 자세는 상대방에게</p> <p>_____</p> <p>_____ 라는</p> <p>의미를 전달 수 있을 것이다.</p>

그림출처: John, Stewart 외 (2005)

※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다음 아래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봅시다.

(1)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말하는 나를 쳐다봐 주었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 주었음.

(2)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옆 모뎀 친구들을 힐끗힐끗 쳐다봄. 계속 다리를 떨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림.

2.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시선, 자세, 말투나 행동 등에서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 이유도 말하여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4. 공격적인 말

: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4.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일상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이 상황에서 민우와 유진이가 들은 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시다.

	<민우가 들은 말>	<유진이가 들은 말>
		
상대를 단정하며 공격하는 말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을 조롱하는 말		

상대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말		
상대를 차별하며 공격하는 말		

2.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유진에게 태호는 “장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들의 말에 민우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4. 친구들의 말에 유진이 받은 상처에 대해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대화 상황에서 태호와 민하의 말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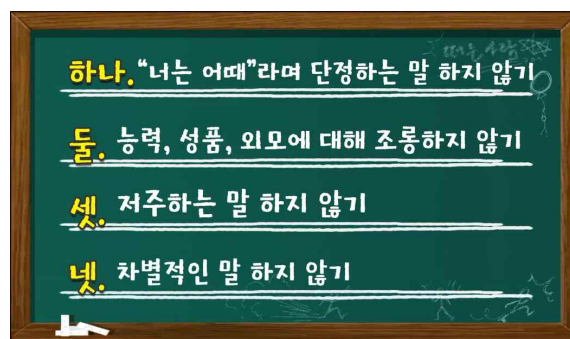
2. 다음은 대화에서 친구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영상을 다 본 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적용하기]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남기는 것의 피해와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
3.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이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학년 ()반 성명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차이로 인한 오해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을 익힌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성규의 결정에 대해 왜 민하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나요?
2. 성규는 민하의 태도에 왜 화가 났나요?
3. 민하와 성규의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태호는 희주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며 말한 것일까요?

5. 희주는 어떤 마음으로 태호에게 말한 것일까요?
6. 둘의 대화에서 태호가 마음 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대화의 구도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생각해 보기]

1. 다음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성규의 대화를 들은 민하가 어떻게 반응했다면 성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민하 : 애들아, 모여 봐.
 (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
 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
 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그래, 좋아.
 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

- [2-3] 다음 대화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희주만 남는다. 희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를 끌고 다가가 희주 쪽을 보고 앉으며.
 태호 : 희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 보려고.
 희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
 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
 희주 : 준비 다 했어?
 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
 희주 : (진지하게) 진짜? 우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선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
 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
 희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며)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
 희주 :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태호 : 됐어! 너 내가 1등해서 상금 타도 국물도 없어! 나 먼저 간다!

2. 여러분이 희주라면 태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3. 여러분이 태호라면 희주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4. 위 두 대화의 문제를 통해 상대의 의견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의 맥락과 의사소통 구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적용하기]

1. 친구나 가족 가운데 어떤 말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마음속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1) 그 말은 무엇이었나요?

(2) 그 말을 친구는(가족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3) 나는 그 말에 왜 기분이 나빴나요?

2. 오늘 그 친구나 가족에게 가서 용기 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의 뜻과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3. 2번까지를 수행한 후에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